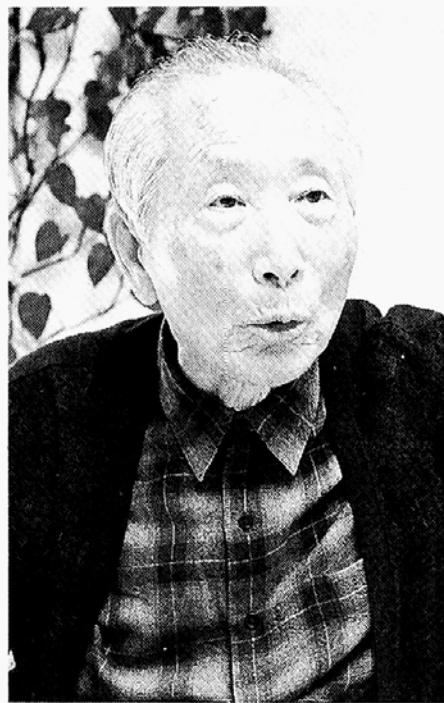


“고통 나눌때 경제위기 극복”

원단 인터뷰

원로 교육자
정재각 박사



약력 · 1913년 경북 상주출생
· 경성대 사학과 졸업
· 고려대 명예문학박사
· 고려대 문과대 교수(47~78년) · 미하버드대 교환교수(66~67년)
· 동국대 총장(78~82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81~82년) · 숙명학원 이사장(85년) · 현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불교방송 이사 · 저서 <세계문화사> <역사의 여운> <역사대전회통> · 국민주권론, 백성정당, 무궁화장 수훈

무인년 새해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IMF구제금융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넘기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절박한 경제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원로교육자 정재각 박사를 신년 원단에 만났다. <편집자 주>

-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때보다 쓸쓸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굳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하지않더라도 새출발을 해야 할 현실입니다. 경제난국에 처한 국민들의 삶 길이 있을 텐데요.

룩 할 것인가, 그래도 안방에서 쫓겨나지 않고 끄떡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킬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인지 우려가 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지개같은 공상에 매료됐던 거지요. 무지와 무능으로 그 파도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부터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확립되지 않았고 국민에 이르기까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한 최대 위기지요.

- 우리가 아직 선전대열에 끼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신가요.

원인규명 철저하면 회생

▲우리가 수용하는 시간은 영원히 들고 도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 인생은 출발의 연속이고 시작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과정입니다. 철학사에서 보면 인생은 인간이 살길찾아 해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살길이다"는 정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삶의 태도는 시선을 밖으로 보내지 말고 내면의 자기 마음 속을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지요. 지금같은 최대 위기의 경제상황에서는 더욱 소유에 대한 욕심을 조절하는 것에서 살 길은 열릴 겁니다.

▲민주주의는 계층·이념·집단지성과 마찰이 어느정도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확립되고, 경제력이 올라가야 실현됩니다. 서구라하는 내부의 계층간의 마찰 알력을 제국주의로 풀었던 것이지요. 전쟁을 일으켜 식민지를 확장해 얻은

민족에 초점 맞춰 경제를 다시 짜야 소유욕 조절 삶의 시선 안으로 전환

-박사님은 20년 넘게 명상을 수행해 오셨는데, 그것이 건강유지의 비결로 알려져 있기도 하구요.

▲배운 것은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하루 두차례씩 매일 해온 것은 10여년 됩니다. 명상은 집중된 수련으로 방향적인 상태에서 소용돌이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은 명상의 경지를 침식하는 스트레스가 강해졌어요. 물론 내 명상의 속달도가 약한점도 있지만, 경제실태통치에 처한 우리현실이 크게 작용하느라 합니다.

-어려움의 극복은 정확한 원인규명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우리 서민들은 언제부터 나라경제가 이 지경이 됐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회황한단하다 무너진 삼당백화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같은 번드르하면서 기반과 골조는 모두 썩었기에 무너질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왜 백화점이 무너지고 한강대리가 끊어졌는지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현실의 인과가 현 정권이 내세운 세계화에 있다고 봅니다. 처음 세계화가 선언됐을 때 무엇을 뜻하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마구잡이로 열어젖혀놓고 안방까지 덕쳐오

로 거두고 있습니다. 주체성을 토대로 남의 것을 수용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자립으로 회향됩니다.

- 국민 개개인의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활약도 돋보이구요.

무조건 서구화론 곤란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가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철학입니다. 막스 베버의 말처럼 원래 자본주의는 서양에서 비롯된 종교 정신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근면하게 돈을 벌어서 신의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쓰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반면 동양권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음에도 돈벌이에 대해서는 멸시해 와 자본주의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타락한 미국식 자본주의로, 자본주의 철학은 희석된 채 돈벌이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입니다. 섹스 폭력 등 사회악의 주범인 셈입니다. 국민정체가 경제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목표에 초점두고 자본주의 철학을 스스로 살려가야 할 것입니다.

-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모두에

게 큰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다. 그럼에도 감내하는 것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작금의 위기 상황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만의 힘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고통분담만이 극복을 가능케합니다.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실제 우리 민족은 위기극복능력이 강합니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민족대단결이 요구됩니다. 발자들은 그저 부처님 정신을 실천하면 됩니다. 5계를 잘 지키는 것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번 난국을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또 무소유정신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현대에 맞는 무소유정신은 아무것도 갖지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즉 소유 하더라도 나만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말고 이사람 또 저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고 보라는 것이지요. 20세기 말 위기를 새로운 세기를 맞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덕천 후암천 이야기에서 부와 빈이 틀어놓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니 빈과 부에 대한 우리 마음이 틀어놓은 것도 깨닫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과 성장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육화(肉化)되어온 가난

**부과 빈 둘 아님 깨달아
새로운 사회로 태어나자**

을 너무 빨리 망각했고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부의 허상이 되고 만 것이다. 과연 제가 사는 마을에서 얼마나 흥청댔는가. 또한 다른 나라의 여행에서 그런 흥청대기로 얼마나 많이 빈축의 대상이 되었던가. 정부와 재벌 그리고 증산증 할것 없이 심지어 농촌의 남녀 할 것 없이 30년전의 가난도 잊은 채 덧없는 국부(國富)에 놀아났던 것이다.

그 결말이 세계로부터 지원을 간청해야 할 거지 신세로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덕천과 후암천의 진리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무인년에 꿈꾸는 '전생(轉生)'이기도 하다.

새아침칼럼

두 여자를 생각한다

무인년이다. 12지신(支神) 가운데 호랑이 신을 말할 법 하다. 이토록 나라의 사정이 나락(奈落)에 떨어진 판이라 더더욱 호랑이의 기상을 떨치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호랑이 한 마리가 한밤중의 산골짜기에 대고 크게 울부짖는 오랜 민화(民畫)는 우리에게 낯익은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 감상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호랑이를 우리 조상들은 민화를 통해서 아주 인간적인 대상으로 열연화시

“그대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저는 공덕천(功德天)이라 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집에서는 보배가 불어나게 해 드립니다.”
이 말에 주인은 더욱 좋아라 하며 그 여자를 맞아들여 꽃과 향을 공양하고 갖은 대접을 다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또 한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흥청했다. 웃도 누더기였다.
“그대는 누구인가”라고 주인은 사나운 소리로 물었다.
“저는 후암천(禍暗天)이라 합니다.”
“무엇하는 사람인가.”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집의 재물을 없애지게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당장 칼을 들고 외쳤다.
“이런, 썩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쳐 죽이겠다.”
그러자 후암천이라는 여자가 끄떡없이 말했다.
“아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오. 아까 당신 집에 온 여자는 제 언니라오. 나는 언제나 언니와 헤어지지 않으므로 나를 쫓아내면 언니도 함께 쫓아내야 하오.”
주인은 집안에 있는 여자한테 가서 물었다.
“저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내 동생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인은 털썩 주저앉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공덕천 후암천 이야기에서 부와 빈이 틀어놓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니 빈과 부에 대한 우리 마음이 틀어놓은 것도 깨닫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과 성장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육화(肉化)되어온 가난

**부과 빈 둘 아님 깨달아
새로운 사회로 태어나자**

을 너무 빨리 망각했고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부의 허상이 되고 만 것이다. 과연 제가 사는 마을에서 얼마나 흥청댔는가. 또한 다른 나라의 여행에서 그런 흥청대기로 얼마나 많이 빈축의 대상이 되었던가. 정부와 재벌 그리고 증산증 할것 없이 심지어 농촌의 남녀 할 것 없이 30년전의 가난도 잊은 채 덧없는 국부(國富)에 놀아났던 것이다.

그 결말이 세계로부터 지원을 간청해야 할 거지 신세로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덕천과 후암천의 진리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무인년에 꿈꾸는 '전생(轉生)'이기도 하다.

고 은
(시인·본지 논설고문)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참사람 열린교육 2008 동국 백주년


**민족을 밝힌 진리의 등불.
이제 온누리로 퍼져 나갑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낙원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교직원 일동

11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 260-3026 FAX : 260-3600

항상 정진하는 한해가 되소서!



중앙승가대학

학교법인승가대학

이사장 송월주
총장 방지하

교직원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전화 : 925-5507~9 FAX : 928-4302